



한국러시아문학회보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NEWSLETTER

통권 제46호
2014 June Vol.46

Contents

학회장 인사말	1
논문발표회 및 학술대회 소식	2
학회지 발간 소식	2
공지사항	3
회원동정	3
신간소개	4
회비납부	10

발행일 2014. 6. 31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이강은

학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한 학기를 마무리 하시고 다시 좋은 연구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조금 쉬시면서 이모저모 상념에 시간을 좀 나누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장

이 강 은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가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각자의 전공을 지키며 한 줄의 의미를 얻기 위해 함께 길을 가는 동지에게 바치는 헌사라면 마땅히 가장 진정한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닐런지요. 물론 세상이 늘 우리의 학문적 삶을 존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모욕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우리 학회원들의 노력이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매우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자산을 확립하는 데 작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 여러분들께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헌정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학회장이라는 직함은 제게 과분하지만 너무나 명예로운 것입니다. 앞으로 이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학문적으로 서로 통하고 나누는 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저는 학회가 양적 성장과 기초 확립의 시기를 지나 이제 내실을 갖추는 질적 성장, 그리고 창의적인 공동 작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회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학문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의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런 뜻에서 우리 학회는 올해부터 혁명 백주년 기념 학술사업을 기획해가기로 했습니다.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 지성계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학을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 안내서가 될 수 있는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존경하는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 기쁩니다. 물론 좋은 결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많은 곤란함과 어려움이 학회와 우리 앞에 늘 상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지금보다 좋았을 때가 없지요. 생각하기에 따라 좋은 조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다시 문제를 만들어어나가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 어찌면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행운이 아닐까요.

부디 올 여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커다란 성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2014년 4월 19일에 제70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이 [자작나무편지 370번 다시 읽기]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이명현 회원(안양대)이 [홀레브니코프의 언어실험]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이규환 회원(대구대), 토론은 김정일 회원(경북대)과 이지연 회원(한양대)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이날 발표회에 이어 3-4기 한국러시아문학회를 이끌어주신 전명선 전 학회장(중앙대) 퇴임기념 학회지와 감사패 헌정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김정일 편집위원장이 기념 학회지 제작 과정을 요약해 주셨고, 이강은 현 회장이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전명선 회원은 퇴임 소감과 함께 후학들, 특히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애정 어린 당부 말씀을 남겨 주셨고, 이어 조주관 회원(연세대)이 전명선 회장 시기 러시아문학회의 상황을 반추해 주셨습니다.

▶ 같은 날, 한국러시아문학회 저술 및 학술사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러시아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회의 역량을 결집시켜 준비할 러시아혁명 백주년 기념 학술연구(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참석한 학회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변현태 회원(서울대)이 [혁명과 문학: 자료집 1917~1934](가제) 기획서를 준비하여 기획 의

도를 설명하였고, 여러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보탤했습니다. 또한 학회 차원의 저술사업인 [러시아 문학의 명장면](가제)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진전되었습니다.

▶ 학회 차원의 학술상과 논문상 수여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2014년 6월 21일에 제71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문학 분과에서는 김주연 회원(동국대)이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체홉 공연에 관하여: 4대 장막극의 시대적 각색을 중심으로]를, 신영선 회원(서울대)이 [레르몽토프 초기 희곡에 나타난 비(非)행위의 문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최종술 회원(상명대)이, 토론은 김혜란 회원(고려대), 김민아 회원(서울대)이 각각 맡아 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정하경 회원(서울대)이 [러시아어의 어순과 정보구조: 하위화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김용화 회원(충북대)이 사회를,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이 토론을 맡아 주셨습니다. 지역학 분과에서는 정영주 회원(고려대)이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김진규 회원(고려대)이, 토론은 정재원 회원(국민대)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학회지발간 소식

▶ 지난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5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45집에는 정년퇴임하신 전명선 회원이 [언어학의 모더니즘: 변별적 자질 이론에 관하여]를 특별기고해 주셨습니다. 김연경 회원(서울대)의 [투르게네프의 잉여 인간 ‘햄릿-돈키호테’와 니힐리스트 바자로프]를 포함한 5편의 문학 논문과, 김용화 회원(충북대)의 [러시아어 남성 명사 복수 주격 - A' 형태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3편의 어학 논문, 성동기 회원(인하대)의 [우즈베키스탄 민족국가 건설

의 허구성 분석: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중심으로]를 비롯한 2편의 지역학 논문, 그리고 문화 분야 논문으로 권정임 회원(선문대)의 [베네치아노프와 야로셴코: 러시아 풍속화의 1820년대와 1880년대]를 포함하여 총 12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6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5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45집에는 문학, 언어학, 지역학, 문화 분야의 논문 9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백용식 회원(충북대)의 [A 가이드אר의 『전쟁의 비밀』에 나타난 사건과 상황 연구]를 비롯한 논문 3편이, 어학 분야에는 박혜옥 회원(상명대)의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비롯한 논문 2편이, 지역학 분야에는 김홍중 회원(중앙대)의 [러시아 동북아시아 인식의 진화와 배경]을 비롯한 논문 2편이, 문화 분야에는 이문영 회원(서울대)의 [재난의 재현과 체르노빌의 <스탈 케르>]를 비롯한 논문 2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총무간사 정영주 karusis@naver.com, 010-3136-1650)

공지사항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47집 투고 안내

2014년 10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논집』 제47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4년 9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러시아어문학논집』에 게재할 원고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노어노문학과 김정일 교수 연구실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93-510378 김정일

▶ 제72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개최 안내

제72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12월 13일(토)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발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각 분과의 학술이사에게 A41-2장 이내의 발표 요약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분과 학술이사 이규환(gwlee@daegu.ac.kr), 어학 분과 학술이사 권경준(kyongjoon.kwon@gmail.com), 문화 분과 학술이사 최종술(dennitsa@smu.ac.kr)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동정

* 김원한 회원(충북대), 심성보 회원(건국대), 백승무 회원(서울대)이 부친상을 당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형규 학회고문의 자제 규남군이 화축을 밝혔습니다.

* 교원 임용, 학위 취득, 결혼, 연구 활동을 위한 출국이나 귀국 등의 소식을 총무이사(kjlee@anyang.ac.kr), 총무간사(karusist@naver.com)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 회원들의 소식도 좋습니다.

신간소개

신간소개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을 올립니다.)



1. 『참칭자 드미트리』 (알렉산드르 수마로코프 지음, 조주관 옮김, 지식음만드는지식, 2014년 4월 2일 출간)

조주관 교수(연세대)는 18세기 러시아 문학 시리즈 가운데 수마로코프의 비극 <참칭자 드미트라>(2014, 지만지)와

크냐지닌의 희곡 <노브고로드의 바담> 및 <마차 때문에 일어난 불행>(2014, 지만지)을 출간하였다. 지금까지 러시아문학사에서 18세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초프는 18세기를 러시아 문학사에서 ‘암흑기’ 혹은 ‘휴지기’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로트만은 포트르 1세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한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후대 러시아인들의 의식구조를 결정짓는 새로운 러시아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로트만은 18세기 문학에 대한 철저한 연구 없이는 러시아 문학사의 흐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브라운(Brown)이나 세겔(Segel) 역시 18세기를 러시아 문학사의 전통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세기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세계 어디서나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두 작가의 작품 번역을 계기로 18세기 러시아 문학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수마로코프는 러시아 최초의 전업 작가로서 ‘러시아 연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극작가이다. 18세기 러시아 문학사에서 그는 고전주의를 정초한 작가로 평가된다. 생전에 희극 수편과 비극 9편을 남겼다. 러시아 역사상 ‘동란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참칭자 드미트라>는 그의 대표적인 비극 작품이다. 여기서 수마로코프는 드미트리와 슈이스키라는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켜 실제 역사가 제공하지 못한 인간 삶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불안과 공포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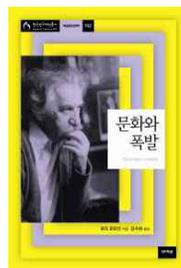


2. 『노브고로드의 바담/마차 때문에 일어난 불행』 (야코프 크냐지닌 지음, 조주관 옮김, 지식음만드는지식, 2014년 5월 20일 출간)

크냐지닌은 당대 최고의 극작가 수마로코프의 사위로 희극 8편, 희극 4

편, 비극 8편을 썼다. 그는 운문으로 된 5막의 비극 <노브고로드의 바담>을 통해 비극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역사적 인물들인 류리크와 바담을 통해 전제정치(Monocracy)와 귀족정치(Aristocracy)의 대립을 보여준다. 류리크는 이상적인 군주로서 현명하고 고결한 성품의 인물로 등장하고, 바담은 노브고로드 공국의 전통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귀족정치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작품은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역사적 순간을 살았던 인간들의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크냐지닌의 코미디 오페라 <마차 때문에 일어난 불행>은 고골과 그리보예도프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농노제와 지주들의 갈로마니아 현상을 풍자한다. 작가는 프랑스제 마차를 구입하기 위해 농노들을 물건 취급하는 천박한 지주에 대한 경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농노들의 사랑을 다루면서 은근히 농노들을 이상화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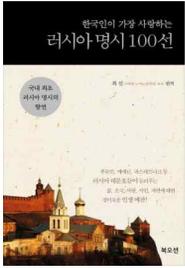


3. 『문화와 폭발』 (유리 로트만 지음, 김수환 옮김, 아카넷, 2014년 3월 30일 출간)

모스크바-타르투 학파의 수장이자 문화기호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유리 로트만의 『문화와 폭발(Kultura i vzryv)』

(1992)을 우리말로 옮겼다. 사회사상사 연구로 시작하여 1960

년대 구조주의와 기호학, 1970년대 문화이론으로 영역을 넓혀 가며 독창적 사상을 일구어낸 로트만은 생애 마지막 저작에서 ‘폭발’이라는 개념에 집중하며 새로운 사유의 실마리를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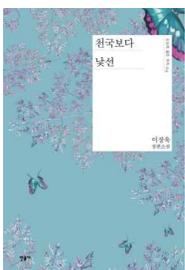


4.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러시아 명시 100선』 (최선 지음, 복오선, 2013년 12월 12일 출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러시아 명시 100선』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최선 교수가 직접 엄선한 러시아의 명시 100편을 소개한 책이다. 푸슈킨, 예세

닌, 파스테르나크 등 러시아를 상징하는 대문호 40인의 주옥 같은 작품 100편을 뽑아 삶, 조국, 사랑, 시인,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인생 예찬을 듣는다.

한국인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감정을 노래한다는 러시아의 명시와 더불어 한국 독자들을 위해 사회·문화적 배경지식과 감상을 시적 언어로 친절하게 풀어 설명했다. 특히, 여백의미를 살려 러시아를 연상케 하는 풍경을 담은 ‘64컷의 아름다운 유희’를 수록하여 아련하고 애뜻한 감성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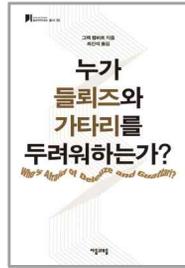


5. 『천국보다 낫선』 (이장욱 지음, 민음사, 2013년 12월 13일 출간)

이장욱의 장편소설 『천국보다 낫선』. 문학과 다양성, 참신성을 기치로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예들의 작품을 엄선한 「오늘의 젊은 작가」의

네 번째 작품이다. 웹진문지문학상, 문학수첩작가상을 수상한 저자가 낯설고 감각적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대학동창인 A의 부음을 듣고 K시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정’, ‘김’, ‘최’의 시선을 1장부터 12장까지 번갈아 가며 등장시켜 예측할 길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A를 사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세 사람의 목소리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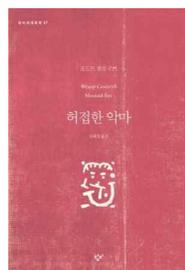
해 사람에 따라 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다르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6. 『누가 들뢰즈와 가타리를 두려워하는가?』 (그렉 램버트 지음, 최진석 옮김, 2013년 12월 16일 출간)

『누가 들뢰즈와 가타리를 두려워하는가?』는 들뢰즈와 가타리를 둘러싼 치열한 지성사적 논쟁 탈영토화 운동에 대

해서 이야기한 책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저술을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며, 1980년대 이래 철학과 문화비평, 문화연구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와 분열증 기획의 주된 흐름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저자는 들뢰즈와 가타리를 둘러싼 오류나 환상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오독의 가능성이야말로 들뢰즈와 가타리가 지닌 진정한 혁명적 잠재력의 하나임을 강조했다.



7. 『허접한 악마』 (표도르 솔로구췌 지음, 조혜경 옮김, 창비, 2013년 12월 30일 출간)

표도르 솔로구췌의 대표작 『허접한 악마』. 참신하고 폭넓으면서도 엄정한 기획, 원작의 의도와 문체를 살려내는

적확하고 충실한 번역으로 세계문학 독서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자 하는 「창비세계문학」의 스물일곱 번째 작품이다. 도스토옙스키를 잇는 완벽한 러시아 소설이라 평가받는 이 작품은 1907년 출간되자마자 러시아 전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인간 내면의 비열한 악마성과 추악한 현실 속의 악을 형상화하며 신의 사악한 창조물을 시적으로 그려냈다.

끝없는 증오 속에 살며 모두가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고 믿고 싸드마조히즘적 행위로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주인공 페레도노프. 비열하며 저속하고 웅졸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허접한 악마’로서 살아가는 그를 둘러싼 천박한 천박하고 속된 인간 군상들의 모습과 중학생인 소년 싸사와 자유분방한 아가씨 류드밀라의 목가적 사랑이야기를 교차시켜 보여주며 순수한 생의 기쁨이 현실의 지지분한 사건들 속에서 퇴행해가는 모습을 그려냈다.



8. -러시아문서 번역집 8』(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지음, 박재만 옮김, 선인, 2013년 12월 31일 출간)

러시아문학 전문가 박재만이 번역한 『러시아문서 번역집』 제8권.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에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4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사업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근대 한국사회관련 자료번역·요약·주해, DB구축>의 성과 중 2차년도의 결과다. 이 책은 만주 문제에 대한 간략보고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러시아의 극동정책》, 《극동 상황에 대하여》, 《미일협정에 관해》, 《드미트리예스키 일기》 등의 내용이 번역되어있다.



9. -러시아문서 번역집 10』(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지음, 엄순천 옮김, 선인, 2013년 12월 31일 출간)

러시아언어학을 연구하는 역자 엄순천 이 번역한 『러시아문서 번역집』 제10권.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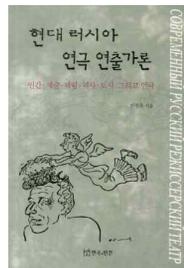
에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4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사업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근대 한국사회관련 자료번역·요약·주해, DB구축>의 성과 중 2차년도의 결과다.



10.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독도』(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김인성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03년 12월 31일 출간)

7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외

교적 공방 속에 표출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 대한 연구, 쿠릴열도 네 개의 섬 반환문제에 지루한 공방을 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정책에 대한 연구, 남중국해의 많은 섬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영토영해문제의 추이에 대한 연구, 그리고 동아시아 영토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영토분쟁의 해결사례에 대한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 결과는 7명의 연구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 발표토론하고 연구 방향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영토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거나 세계 유수의 영토문제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최근 도를 더해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해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정책적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고, 연구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11. -현대 러시아 연극 연출가론』(전정옥 지음, 연극과인간, 2013년 12월 31일 출간)

『현대 러시아 연극 연출가론』은 러시아 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 18인의 연출 방법론을 기술한 책이다. 연출가의

연출 방법론을 집약하는 대표 작품을 통해 그것이 품고 있는 시대적 맥락과 새로운 미학적 실험을 러시아 연극사의 선상에서 읽어 내려간다. 또한 연출론의 맥락에서 그것의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지형을 예술가로부터 직접 듣는 방식을 취하고, 이를 통해 ‘연출의 연극’ 시대로서의 현대 러시아 연극의 양상을 규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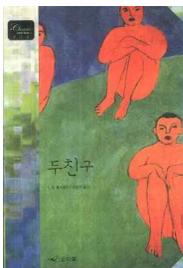


12.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19세기』 (이현우 지음, 조성민 그림, 현암사, 2014년 1월 10일 출간)

푸슈킨에서 체호프까지, 문학의 황금 시대를 만나는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19세기』. 철학에서 역사과학문

학까지 ‘모든 책’을 읽어내는 ‘뉴 파워라이터’ 로자 이현우의 저서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청중의 찬사를 받은 ‘로자의 러시아 문학강의’를 생생하게 책으로 엮어냈다. 푸슈킨에서 체호프까지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들을 다루면서, 그들의 삶과 전반적인 문학세계를 소개하고 대표작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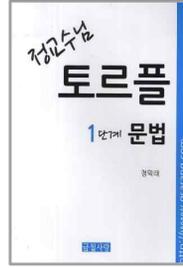
러시아 근대문학의 시작이자 정수인 ‘국민시인’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을 비롯하여, 가장 순수한 낭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레르문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 러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대문호로 평가받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등 문학을 사랑하는 ‘일반인’을 위한 여덟 번의 특강을 담고 있다. 때로는 잔잔한 웃음으로, 때로는 모진 비평으로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황금시대를 가로지름으로써, 러시아 문학의 전반적 흐름을 알고 거장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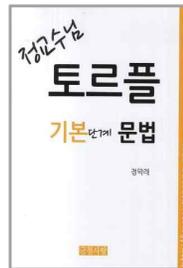
13. 『두 친구』 (L. N. 톨스토이 지음, 이승억 옮김, 인디북, 2014년 1월 27일 출간)

L. N. 톨스토이 소설 『두 친구』. 톨스토이의 문학 세계와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소설이다. 인생과 행위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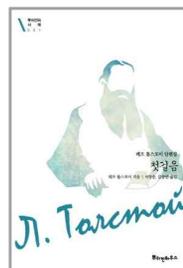
14. 『정교수님 토르플 1단계 문법』 (정막래 지음, 금철사랑, 2014년 1월 15일 출간)



15. 『정교수님 토르플 기본단계 문법』 (정막래 지음, 금철사랑, 2014년 1월 29일 출간)

『토르플 기본단계 문법』은 러시아어 기초단계를 마치고 기본을 다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구성된 책이다.

토르플 시험에 출제되는 100문제를 잘 풀도록 하기 위해서 10배가 되는 1000여개의 문제를 수록하였다.



16. 『첫걸음』 (레프 톨스토이 지음, 석영중, 김종민 옮김, 뽀쉬낀하우스, 2014년 2월 3일 출간)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간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저술한 세 편의 에세이

모음집이다. 그 이야기의 골자는 ‘금주하라’, ‘금연하라’, ‘육식과 과식을 자제하고, 절식하며 채식하라.’이다. 즉, 톨스토이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식, 흡연, 음주 및 온갖 마취성 기호 식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빠져 그 중독성 영향하에 노예처럼 휘둘리는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다. 100년 전에 노작가가 쓴 건강에 관한 충고는 현대인의 화두가 되고 있는 ‘웰빙’ 열풍과도 놀라울만큼 일치하고 있다.

뽀쉬낀하우스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러시아 문학 시리즈 ‘뽀쉬낀의 서재’를 기획하였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첫걸음’은 톨스토이 서거 100주년을 기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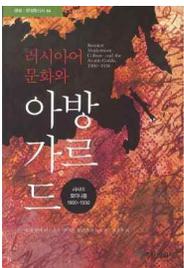
한국 최초의 번역이다. 19세기 대문호의 사변적 건강 철학에 세이에 귀를 기울여 보자!



17.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 (다닐로 키슈 지음, 조준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4년 2월 20일 출간)

현대 발칸문학의 자부심 다닐로 키슈의 대표작 『죽은 자들의 백과전서』. 저자의 사상과 문학세계가 잘 구현된 연작소설집으로 근 10년에 걸쳐 쓰인 아홉 개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책에는 등장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생애를 진실한 역사로 보는 저자의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공식 역사에 대립해 보통 사람들의 생과 사를 압축하여 보여준다.

역사의 영원, 죽음 속으로 떠난 다채로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묘사하며, 각각의 에피소드를 인류 보편에 닥쳐오는 죽음의 총체적 이미지로 상승시키고 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파란만장한 인생의 면면을 통해 다채롭고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대의 전설에서 현대의 정치적 메시지를 읽어내고 비극과 희극, 장중한 어조와 아이러니한 냉소 사이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탄력 있게 전개해 나간다.



18. 『러시아어 문화와 아방가르드』 (르네 웰렉 지음, 문석우 옮김, 예림기획, 2014년 2월 28일 출간)

이 책은 러시아어 문화와 아방가르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러시아어 문화와 아방가르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9. 『중급 러시아어 2』 (백준현 지음, 글로벌콘텐츠, 2014년 2월 28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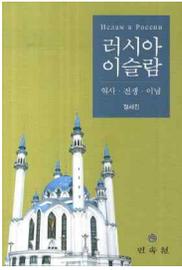
중급 어휘, 구문 분석과 작문 활용을 위한 지침서 『중급 러시아어』 제2권. 표준적인 어휘와 구문의 정확한 사용법 터득을 통해 중급의 독해와 작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다. 독해 지문으로 1권과 마찬가지로 라흐마노프의 중편소설 ‘늑가의 작은 집’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주요 어휘 및 구문, 어휘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20.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세계 문학』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오은하, 이병훈 외 지음, 매경출판, 2014년 3월 10일 출간)

톨스토이부터 하루키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세계 문학』. 세계 문학 고전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주제들을 다루고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돕는 메시지들을 던지지만, 길고 지루하다는 편견으로 쉽게 다가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에서 개설한 ‘세계 문학 특강’의 강의록을 정리하여 펴낸 것으로, 유명 작가들의 텍스트를 같이 읽어본다.

가령,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바리케이드의 유래,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기차의 함의, 《변신》과 《학술원에 보내는 보고》를 통해 카프카가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등 이 책을 통해 세계 문학의 배경 지식은 물론,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와 문학사적 의의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현 시대에서 갖는 의미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21. -러시아 이슬람: 역사전쟁-이념』 (정세진 지음, 민속원, 2014년 3월 20일 출간)

『러시아 이슬람』은 크게 2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러시아 이슬람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개관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카프카스 전쟁 시기의 이슬람 분석을 개진한다. 2부에서는 러시아 이슬람 이념을 전통적인 수피즘, 그리고 급진적이고 군사적 경향을 살라피 이슬람, 타타르스탄공화국을 중심으로 유럽적인 사고를 가진 유로 이슬람 등의 내용이 개진되어 있다.

습을 담고 있다. 죽음을 무릅쓴 취재를 바탕으로 안나는 러시아에서 체첸 전쟁과 푸틴 정권시이 밀월 관계를 파헤치며 푸틴 독재와 러시아 민주주의의 무력화의 현실을 보여 준다.

안나는 푸틴 이후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취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나서면서 테러를 조장하고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테러 집단이 아닌 정부 당국이라 주장한다. 두브롭카 극장 인질극,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 베슬란 초등학교 인질극 등 러시아에서 발생한 굵직한 테러 사건을 통해 저항할 의지도 수단도 빼앗긴 러시아 국민들과 소련으로 회귀 중인 러시아 사회의 민낯을 공개한다.



22.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정아 옮김, 지식출판만드는지식, 2014년 3월 28일 출간)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장편. 그가 평생 고민해 온 온갖 사상적 문제와 그 해답이 모두 담겼다. 삼각관계와 근친살해, 분열되어 가는 한 가족의 막장드라마를 통해, 모순적이고 복잡다단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색을 담아낸다. 이성과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영원히 옳은 대답이 여기 있다.



24. -일곱 성당 이야기』 (밀로시 우르반 지음, 정보라 옮김, 열린책들, 2014년 6월 20일 출간)

체코 문학에 고딕 느와르 스타일을 부활시킨 작가 밀로시 우르반의 두 번째 소설 『일곱 성당 이야기』.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떠올린다는 평가를 받는 이 작품은 프라하를 대표하는 실존하는 여섯 개의 대표적인 성당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일곱 번째 성당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고딕 스릴러이다. 프라하의 옛 모습을 재건하려는 음모로 밝혀지는 ‘7성당’의 비밀을 담고 있다. 성당이라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프라하의 역사와 문화유산, 풍부하고 찬란한 모습과 끔찍하고 기괴한 모습 모두를 보여주고 있다.



23. -러시안 다이어리: 러시아 민주주의의 실패와 냉소, 무기력에 관한 보고』 (안나 폴릿콥스카야 지음, 조준래 옮김, 이후, 2014년 4월 10일 출간)

푸틴 독재를 폭로한 안나 폴릿콥스카야의 마지막 기록 『러시안 다이어리』.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의 수많은 민주주의 언론인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 책은 그들 중 하나인 안나 폴릿콥스카야의 기록으로 2003년 12월 의회 선거로 재선에 성공한 푸틴 인권운동과 민주주의 세력을 무력해 나가는 2005년 8월까지의 모

K라는 이니셜로 자신을 부르는 소심한 경찰은 우연히 프라하의 어느 고딕 성당에서 살아 있는 사람의 발목에 밧줄에 꿰여 종이 칠 때마다 함께 흔들리고 있는 엽기적인 사건을 목격한다. 그 사건을 목격한 계기로 K는 현대 프라하 건축물들을 중세의 고딕 양식으로 완벽하게 복원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귀족 출신 그윈드와 세 명의 조력자를 만나게 된다. 평소 14세기 프라하 신시가지의 미학적, 종교적 이상에 빠져 있던 K는 옛 건물에 손을 대면 과거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자신의 기이한 능력을 이용해 그윈드를 돕지만 일련의 기묘한 사건들에 휩쓸리며 모든 일의 종착점, 수수께끼의 장소 ‘7성당’에 얽힌 비밀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회비납부

▶ 회비 납부 현황

2014년 6월 30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는 총무간사 정영주(karusist@naver.com)에게 연락 주십시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변현태 부회장 1,000,000원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 특별회비를 후원해 주신 백용식, 변현태, 전명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비는 학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09~)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4년 6월 30일 현재)

고영량, 김경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욱,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77인)

▲ 평생회비 부분납(2014년 6월 30일 현재)

민정현, 백경희, 서선정, 윤새라, 윤영순, 이수현(이상 10만원), 김태욱, 홍택규(이상 15만원), 안지영(20만원), 이득재(38만원) (이상 10인)

▲ 연회비 납부(2014년 6월 30일 현재)

권정임, 김연경, 김홍중, 이문영, 임수영, 황서경 (이상 6인)

▶ 2014년도 회비 납부 안내

아직 2014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10-406-930904 이강은입니다.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대학교 러시아어과 이기주 교수 연구실 내 (사무국)

TEL: 031) 467-0801 FAX: 031) 467-0909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